

시장의 변화와 건축사의 대응

Market Changes and Architect's Response

글. 백민석 · 본지 편집국장

건축시장에서 유일한 전문직인 건축사가 '3D 전문직'이나 '저소득 전문직'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분야 전문직도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도 못 버는 변호사,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의 상황은 이제 가습기리조차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껏 건축사를 비롯한 전문직 시장의 위협 요인은 대부분 제도의 변화나 이를 수반한 전문가 공급 확대였습니다. 이는 비전문가가 노력해도 메우기 힘든 전문가와의 지식 격차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전문직의 존재 의의 자체는 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해 전 세계를 강타한 알파고(Alpha Go)와 같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의 등장 이후 이 같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문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 이러한 정보기술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전문성을 더욱 편리하고 저렴하게 얻게 되겠지만 인간 '전문가'는 더 이상 '실용적 전문성'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특혜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원천조차 아 니게 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추세라면 전문가 집단 자체의 생존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소속된 전문직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전문직을 비롯한 모든 직업은 수많은 작업들의 결합체입니다. 이런 작업 하나하나를 쪼개보아야 합니다. 기존에 전문직을 구성하던 작업 각각의 공급자로서, 새 수요에 맞춘 새 작업의 공급자로서 인간이 기계(기술)보다 우위에 있을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전문직의 일부 작업은 전문가의 손을 떠날 것이고 새로운 작업이 전문가의 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보기술 시대에 인간이 맡아야 할 역할이 앞으로 계속 존재할 직업의 원형일 것입니다.

건축사 영역에서 보면 설계분야에서는 사용되는 툴(tool)의 변화로 인해 건축사 업무의 변화가 이미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제공되는 2차원 도면은 3차원 모델 데이터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동으로 추출되고 있습니다. 제도(製圖)가 3차원 모델링(BIM)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작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같은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가 추진하는 건축종합정보센터 구축도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가 구체화되면서 책임의 한계는 명확해졌지만 각종 서류의 작성량이 늘었고 대가 또한 상승했습니다. 건축주, 건축사 모두 대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합니다. 건축사는 정해진 비용 안에서 툴을 이용해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업무량 증가의 증거인 결과물들을 건축주에게 많이 제출하는 것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